

# “불교-문학 통섭, 길도 넓고 희망도 크지요”



데스크 초대석 불교문학포교원장 해관스님

영상매체와 통신기기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인간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 틈바구니에서 문화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실험도 아끼지 않는다. 삶의 방식이 변한다고 하여 서사(소설)와 서정(시)이라는 문학의 본령(本領)까지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도 자칫 안일한 것일 수 있는 시대, 한국문학 속의 불교문학도 ‘도전과 응전’이라는 가파른 상황을 거부할 수 없다. 신매체가 사람들의 감성 활동을 지배하는 이 시대의 불교문학은 과연 건강한가? 1990년 서울 서대문구 홍은3동에 불교문학포교원을 개원한 이후 불교와 문학의 통섭과 융합을 이끌어 온 해관 스님. 스님은 현대 승려문단과 재가불자들의 문학적 열정을 함께 아우르며 불교문학의 발전을 위한 발판 다지기에 20여년을 보냈다. 1986년 <시조문학>으로 초회 추천을 받고 1989년에 추천 완료되어 문단활동을 시작한 해관 스님은 시집 <반비 그리고 꽃>을 펴냈고 현재는 <불교문학> 발행인이다. 한국문인협회와 시인협회 회원, 국제 펜클럽 한국본부 이사로 활동 하고있다. 해관 스님에게 불교문학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물었다.

—불교문학포교원은 어떤 동기로 언제 개원했는지요.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불교와 문학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록으로 전하는 경전들이 문학적 성격을 갖기 때문입니다. 잘 알다시피, 경전은 단순하게 구성된 가르침의 기록이 아니라 산문과 운문이 적절히 조화된 문학적 수사(修辭)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특히 선불교에서 선사들이 깨달음의 총명한 희열을 짧은 시구로 드러낸 오도송이라든지, 입적을 앞두고 토해내는 열반송(涅槃歌) 등은 불교만의 독특한 문학적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설화나 전기문학 분야에서도 불교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연 스님이 지은 <삼국유사>가 없다면 한국의 고대문학이 없을 정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삼국유사>의 상당부분이 불교문학의 범주에 드는 것이라고 볼 때 한국문학에 있어

### 만해축전 불교문학 저변 확대 역할 특목 “‘불교문학’ 전국적 조직망 완성 힘쓸 것”

불교는 불가분의 관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들어 불교는 문학과 밀접한 관계성을 살려나가는 데 소홀한 감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작품을 쓰면서 틈틈이 문인협회나 문학 모임에 가는 기회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런 모임에 가 보면 다른 종교계의 문인들은 활동을 아주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학을 통한 포교의 공간이라도 하나 열어 보고 싶은 생각이 1990년 4월 1일 불교문학포교원을 개원했습니다. 불교와 문학의 만남을 추구하는데 뜻을 함께 한 많은 분들이 불교문학포교원과 <불교문학>이라는 공간을 중심으로 창작과 문예운동을 해보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불교문학포교원이라는 특징에 맞춰 매월 정기적인 문학모임(품평회 등)을 갖고 있으며 청소년 글짓기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불자님들을 위한 일반 법회도 열고 있습니다.

—인문학이 시대에 밀린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고 문학도 그 향유계층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불교문학이 처한 상황은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불교문학도 시대의 흐름에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사회구조가 인문학보다는 자연과학에 의존하고 있고 대중들의 관심 역시 ‘감성’ 보다는 ‘생존’으로 쏠려 있기 때문이죠. 취업과 유관한 공부에 매진해달라 살아가는 게 사회적 흐름입니다. 자기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바쁘기만 한 것이 현대인이고요. 생계의 문제가 절박한 현실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볼 여가를 내지 못하니 문학도 생활권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구나 인터넷이나 휴대폰 등 통신 기술의 발달은 조용히 앉아 문학을 감상할 틈을 주지 않습니다. 창작물은 활발하게 유통되고 작가가 독자가 소통할 때 생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생산되는 문학작품은 건강하게 소통될 길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교문학은 일반문학

과 또 다른 측면이 있으므로 소외의 폭이 더 넓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교

의 가르침과 정신 그 자체는 문학을 비롯한 모든 예술에 깊이 전착될 수 있지만 그렇게 생산되는 창작품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나름대로 ‘전문적’인 분야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문인들 사이에서도 불교문학에 대해서는 전문가 이외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고, 그런 까닭에 우수한 작품이 창작될 확률도 낮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일반적인 상황분석이 전부 아닙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불교는 그 자체로 문학적 접근성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사라진 것은 과학으로 풀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만큼 자신의 실존과 근원에 대한 고민도 많습니다. 인간 존재의 근원을 탐색하는 불교문학이야말로 과학으로부터 소외된 인간 사회에 가장 절실하고 친근한 벗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최근 몇 년 사이에 불교에 전착한 작품을 쓰는 문인들도 늘어나는 추세고 선시(禪詩)를 연구하는 학자나 평론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교문학에 대한 문학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



그원인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무엇보다 ‘만해축전’의 영향을 꼽을 수 있을 겁니다. 해마다 성대하게 열리는 ‘만해축전’은 만해 스님의 사상을 국내 문학계뿐 아니라 세계화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만해 스님의 사상이란 바로 불교의 사상이고 불교문학의 정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해축전’은 다양한 테마 이벤트와 시상식, 학술세미나, 창작발표회, 백일장 등을 통해 불교문학의 근간을 확대해 나가는 역할을 하는 좋은 잔치마당입니다. 또 <유심>과 <불교문학> 등 계간지도 불교의 정신과 문학이 만나는 좋은 공간입니다. 이들 계간지들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이 소통되고 문인들이 배출되는 것만으로도 불교문학의 앞날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불교문학의 저변은 무한정 확장되리라

고 보고 있으며 그에 따른 질적 향상도 매우 긍정적으로 전망합니다.

—현대불교문인협회와 계간 <불교문학>을 자세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현대불교문인협회는 불교문학을 견인해 나가는 주축입니다. 현재 350여명의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조오현(신흥사 회주) 스님께서 상임고문을 맡고 계십니다. 고문으로는 천화, 정후, 성우 스님들이 지도해 주시고 있고 수완 스님이 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오세영(한국시인협회장) 서울대 명예교수와 최동호(고려대) 교수, 김재홍(경희대) 교수, 나태주 시인, 문호치(한국펜클럽이사장) 시인, 이은봉 공공규 장영우 문숙 시인 등이 불교문인협회를 이끄는 중심축입니다. <불교문학>의 근원은 불교문학포교

원 개원 직후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포교원을 개원한 후 곧바로 불교문학에 관심 있는 사부대중들이 모여 ‘문수레갈나눔’이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모임의 동인시집 <돌의 탄생>을 5차례 펴내고 현대불교문인협회를 조직해 <문학법보> <삼오문학> <문학과 삶> 등의 소식지들을 꾸준히 이어왔습니다. 1995년 오현 스님(신흥사 회주)으로부터 <불교문학>이라는 제호를 받아 본격적인 계간지 발행에 돌입했고 다음해부터는 ‘현대불교문학상’을 제정해 운영했습니다. 이 상은 1999년부터 조계종 총무원이 주최하고 현대불교문인협회가 주관하는 형식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불교문학>은 매년 신인상을 통해 시 소설 평론 등 각 분야에 걸쳐 신인을 발굴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0여명의 문인이 배출됐습니다. <불교문학>은 불교와 문학의 상호통섭과 융합을 지향하며 한국학의 질적 향상과 문학을 통한 포교의 사명을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불종사상대회’를 개최하여 불교문학의 저변확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매년 문학계와 불교계는 물론 인문학계로부터 주목받는 주제를 선정해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불교문학>의 창작정신을 고양하고 있는데 이는 현대불교문인협회의 성장 동력이기도 합니다. 지난해의 경우, ‘불교와 영상문화’를 주제로 하는 세미나와 기획특집(<불교문학> 38-39호)으로 주목받은 바 있습니다.

—<불교문학>이 더 좋은 문예지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앞에서 언급했듯이 한국문학 속에서 불교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나 문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 가운데 <불교문학>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조계종 총무원의 일부지원과 회주를 통해 제작비가 충당되고 있지만 보다 체계적인 재정구조를 이루어 더 좋은 문예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불교문학>은 문학의 모든 장르를 수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는 불교와 문학의 상호통섭과 융합이라는 이념에 충실하고자 하는 의의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발전 가능성이 어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장르를 섭수하다보면 집중도가 떨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운 역사를 건지며 꾸준히 발전해 온 저력이 새로운 희망을 만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보다 입체적인 기획과 좋은 필진의 확보, 편집과 디자인의 세련미를 더해가며 불교문학의 교두보를 지키고자 편집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스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불교문학>은 가장 엘리트 집단인 포교하는 포교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중앙본부와 경남, 대구지부만 활동하다 작년에 광주, 전라지부를 결성하여 호남지방에도 불교문인의 귀의처가 마련되었습니다. 올해는 부산, 경남지부와 충청, 대전지부를 결성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조직망을 완성하여 불교문학의 저변이 더욱 확대되도록 하는 것이 저와 현대불교문인협회의 가장 큰 발원입니다.

글=임연태 부국장 사진=박재원 기자

**평생부자지갑**  
◆무자녀 소원 성취 지갑

여성용나눔지갑  
\*고급케이스에 선물로도 좋습니다!

## 신묘장구 다라니 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갖가지 소원이 성취되는 영험!

**소중한 가족 친지에게 새해 성공의 선물! 소중한 아내에게 새해 소원성취의 선물!**

2008년 쥐띠 무자녀는 12지신중 첫번째로 앞으로 12년을 새로이 시작하는 첫해다. 재운이 없는 지갑은 과감히 버리고 새로이 시작할 시점이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신묘장구란 신통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잘 풀린다는 뜻이다. 세상을 살다보면 하는일마다 뜻대로 되지않고 갖가지 고통을 당하고 사는 중생들이 수없이 많다. 그중에서 제일 큰 고통이 물질로 인한 고통이다. 부처님 법구에는 세상사는동안 물질의 고통을 해결하고 평생부자로 사는 대비신력(大慈悲力)의 법구가 있다. 그러나 미련한 중생이 깨달지 못하고 법구가 무언지도 모르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간다. 신묘장구 지갑은 대비신력의 신통한 중자가 들어있어 백배, 천배, 만배의 무량대복을 받으며, 어떠한 고통과 액난도 다 소멸되게 영험을 받게 하는 의식인 점안식까지 마친 지갑이다. 또한 사용해본 이들의 입소문을 통해 어려웠던 사업과 장사가 잘되고 부동산이 쉽게 팔리고 생각지도 않던 좋은 일들이 만들어 지는 등 영험의 지갑으로 화제가 되고 있다. 지갑내부에는 돈을 들어오게 하는 신묘장구인 “보령”을 넣고 모든 일들이 확 풀리게 하는 영험의 “반장”을 부착하고 모든 소원이 성취되는 “육자대명왕진언”을 지갑앞면에 넣었으며 천연고급소가죽에 일반지갑과는 비교될 수 없게 내부가 꾸며져 있다. 불심사에서는 지갑 사용하실분의 생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시면 그분의 소원성취를 위한 100일 축원불공을 해드리며, 전화로 신청하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남성용반지갑65,000원 여성용반지갑95,000원

신용카드분할가 문의(02)741-4488  
농협:032-12-19345 이상하

2008년 삼재 소피, 뱀띠, 닭띠 삼고금강저 몸에 지니면 삼재화 막아!!

다쳐올 화를 미리 쫓는 삼고금강저

\* 고급케이스에 담겨있어 뜻깊은 삼재소멸 선물로 좋습니다.

2007년에 드는 삼재 2008년 목은삼재 2009년 나가는 삼재가 시작된 소피, 뱀띠, 닭띠는 앞으로 2009년 말까지 액운과 재난과 고통속에 삶을 살아야 하므로 자중자재하고 건강에 조심하며 금전관계에 조심하고 관재수가 있으므로 위험하지 말고 일을벌리면 낭패를 당하므로 근신하며 조용히 지내야 한다. 삼재를 소멸하는 방법은 없지만 다쳐올 화를 어느정도 막아 액란을 모면하는 비방으로 불가에서는 삼고금강저를 몸에지니고 다니게 한다. 삼고금강저는 인드라신(神)의 밀교의식에 쓰이는 불퇴전의 승리의 법구로 만사를 방해하

"운명"을 읽고 나면 성공이 보인다!!!

미움과 운명을 바꾸어 주는 책 ○ 오희규 실화소설

운명

전3권 완간기념 할인판매

50%

전집구입시 15,000원 후불제!  
(062)266-1083, 266-6693

으로 전화주시면 책 먼저 보내드립니다  
입금계좌: (예금주: 오희규)  
농협 601175-52-016521

■ 주요 수록내용 ■  
 설거지 밥을 만들어요  
 밥이 미쳐가고 있어요  
 외제를 이야기  
 바퀴 놓고 생각하기  
 실수의 흔적  
 처제와의 불륜  
 육체란 무엇인가?  
 입시 이야기  
 생애수 이야기  
 제발 시집가고 싶어요  
 세번 결혼한 검사님  
 입덕과 세스의 비밀  
 남편과 제발 헤어지게 해주세요  
 두번 태어난 보일러공의 행복  
 성공하는 사람은 다르다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노처녀의 사랑 이야기  
 넘치는 정력을 주워할 수 없어요  
 자신의 처지를 겸허히 인정하라  
 운명을 바꾸는 법

■ 책속 부록 ■  
 ▶ 생일로 할 수 있는 내 몸의 건강  
 ▶ 민초 보는 법  
 ▶ 민초 보는 법  
 ▶ 시(時)로 보는 운명  
 ▶ 불행로 손(喪) 보는 법  
 ▶ 십재법

연락처(우편번호 500-500)  
 광주광역시 북구 황곡(망월)동374-2번지  
 전화: 062-266-6693